

2019년 6월 2일 / 주님 승천 대축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느님 나라로 오르신 것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언젠가는 참 고향인 하느님의 품으로 갈 수 있는 은총을 구하며 이 전례에 참여합니다.

입당성가 : 141번 '죽음을 이긴' (1,2절)

본기도

†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저희를 들어 높이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기쁨에 가득 차 감사의 제사를 바치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올라가신 하늘 나라에 그 지체인 저희의 희망을 두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 1 독서 : 사도행전 1장 1절-11절

안 내 :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시어 사십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고 승천하실 때가 되자 제자들에게 성령강림을 약속하시며,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묵 상 :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동안 사도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갈릴래야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세상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도록 독려합니다.

화답송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제 2 독서 : 에페소서 1장 17절-23절

안 내 :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느님을 알고 그분께 희망을 두라고 권고합니다.

묵 상 :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 그분을 죽은 이

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하느님의 부르심을 지니게 되었고 세상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희망 속에 그분을 증거 하게 됩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
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복음 24장 46절-53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 : 25번 ‘사랑의 하느님’

영 성 체 : 166번 ‘생명의 양식’

영성체 후 묵상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과 함께 사시고 당신 몸을 바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여전히 성체성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하늘에 오르셨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41번 ‘죽음을 이긴’ (3,4절)

2019년 6월 9일 / 성령 강림 대축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드디어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가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 우리 안에서 항상 함께 살아 계신 성령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전례에 참여합니다.

입당성가 : 143번 '진리의 성령'

본기도

† 기도합니다.

하느님, 오늘 이 축제의 신비로 모든 민족들과 나라에 세우신 하느님의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니, 성령의 선물을 온 세상에 내려 주시고, 복음이 처음 선포 될 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이제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사도행전 2장 1절-11절

안 내 :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자 사람들은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묵 상 : 성령은 모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력으로 다가오시는 분으로서 각자에게 가장 절실한 부분을 기꺼이 채워주시는 하느님의 기운이십니다.

화답송 :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제 2 독서 : 코린토 1서 12장 3절-7절, 12절-13절

안 내 :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을 향한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묵 상 : 성령은 하느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느님께서 활동하심을 드러내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속가<성령송가> : 매일미사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 복음 20장 19절-23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 : 210번 ‘나의 생명 드리니’

영 성 체 : 175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영성체 후 묵상

우리는 늘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으로

자신 안에 숨으려고 합니다.

숨어서 보이지 않으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니 기꺼이 받아먹으라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숨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힘에 의지하여

세상으로 과감하게 걸어 나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47번 ‘임하소서 성령이여’

2019년 6월 16일 /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기도가 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로 향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격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과 같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도 공동체와 친교와 일치로 이룰 수 있도록 희망하며 이 전례에 임합니다.

입당성가 : 81번 '영광의 주 성삼위'

본기도

†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신 성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세상에 보내시어, 하느님의 놀라우신 신비를 인간에게 밝혀 주셨으니, 저희가 참신앙으로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영광을 알고, 오직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을 흠송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 1 독서 : 잠언 8장 22절-31절

안 내 : 잠언서의 저자는 삶의 지혜를 묵상할 것을 훈계합니다.

묵 상 : 생명과 죽음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인간이 선택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입니다. 하느님께로부터 거저 받은 것들입니다. 삶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화답송 : ◎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제 2 독서 : 로마서 5장 1절-5절

안 내 : 바오로 사도는 로마의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영광과 희망을 붙잡으라고 격려합니다.

목 상 : 목적이 분명한 삶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인내는 목적지를 향한 꿈과 희망에서 나오는 인격의 덕목입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 받으소서.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 복음 16장 12절-15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 : 215번 ‘영원하신 성부’

영 성 체 : 174번 ‘사랑의 신비’

영성체 후 묵상

우리는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 밑에서
보호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내고
끊임없이 맺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합니다.
하느님 역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관계 안에서 사신다고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둘러싼 수많은 관계 안에서 활동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21번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3절)

2019년 6월 23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천상의 양식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성체는 예수님 그 자체이며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며 이 전례에 임합니다.

입당성가 : 178번 '성체 앞에'

본기도

† 기도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성찬의 성사로 주님의 수난을 기념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성체 성혈의 거룩한 신비를 공경하게 하소서.

주님께서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제 1 독서 : 창세기 14장 18절-20절

안 내 :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람에게 멜키체덱이 복을 빌어주며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 하느님께 찬미 드립니다.

묵 상 : 아브람은 멜키체덱의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지로 십분의 일을 떼어 바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스스로 한 일에는 셈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에는 무디어지고 셈에는 빨라지진 않았는지요? 비워낼수록 채워주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합시다.

화답송 : ◎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제 2 독서 : 코린토 1서 11장 23절-26절

안 내 : 바오로 사도는 성찬에 참여한 모든 백성은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 마다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목 상 :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체 성혈은 영적 허기를 채워주는 양식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성체의 신비를 묵상합시다.

부속가<성체 송가> : 매일미사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복음 9장 11절-17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에물준비 : 211번 ‘주여 나의 몸과 맘’

영 성 체 : 501번 ‘받으소서 우리 마음’

영성체 후 묵상

세상은 우리에게 나누지 말라고, 나누면 빈곤해질 것이라고 가르치는데, 복음은 나눔이 우리를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세상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성체와 성혈 신비의 중심에서 생명을 나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부서지고 나뉘지고 먹히는 삶을 사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성체성사 안에서 부서지고 나누어지고 먹히고 계십니다. 나누어 받은 생명을 다시금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기 시작할 때 성체와 성혈의 신비는 살아있는 신비로 우리 가운데 머무르게 됩니다. 가정과 이웃 안에서 조건 없이 내어주는 존재, 쪼개어지는 존재,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밥이 되셨다면 우리도 이웃을 위한 밥이 되어야겠습니다.

공지사향

파견성가 : 200번 ‘열렬하신 주의 사랑’

2019년 6월 30일 / 연중 제13주일 (교황주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13주일이며 교황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그분이 가신 길을 믿음으로 곳곳이 따르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전례에 참여합시다.

입당성가 : 19번 '주를 따르리'

본기도

†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상 은총으로 저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다시는 오류의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언제나 진리의 빛 속에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 1 독서 : 열왕기 상권 19장 16절. 19절-21절

안 내 : 엘리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묵 상 :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예언자로 세우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겹옷을 엘리사에게 걸쳐 줍니다. 이 겹옷은 그의 인격과 권리 사명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화답송 : ◎ 주님, 당신은 제 몫의 유산이시옵니다.

제 2 독서 : 갈라티아서 5장 1절. 13절-18절

안 내 : 우리는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묵 상 :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키셨습니다. 육이 욕망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자유롭습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복음 9장 51절-62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 : 513번 ‘면병과 포도주’

영 성 체 : 504번 ‘우리와 함께 주여’

영성체 후 묵상

예수님께서서는 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참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가신 길을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온갖 집착에서 벗어나
하늘나라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202번 ‘구세주의 성심이여’